

# 광주시, 2028년 전국체육대회 유치 확정

‘2028 전국체육대회’ 개최지로 광주시가 최종 확정됐다. 광주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되는 것은 지난 2007년 이후 21년 만이다.

광주시는 최근(10월20일) 대한체육회가 이사회를 열어 2028년 제109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지로 광주시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광주는 전국체전 유치를 계기로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전국에 각인시키겠다는 각오다. 광주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체전, 미래로 도약하는 체전’을 기조로, 체육을 넘어 문화·경제·도시 활력까지 아우르는 종합축제를 준비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지난 7월 ‘지역 체육인들과 대화’를 통해 전국체전 유치 필요성을 공유하며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섰다. 이후 광주시, 시교육청, 시체육회, 시장엔지니어링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전담팀(TF)을 구성해 대회 운영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공모 신청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진행했다.

광주시는 이번 전국체전을 단순한 체육대회가 아닌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도시 축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스마트 체전 ▲문화·예술 융합 체전 ▲시민 참여형 체전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림 체전 등 4대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이번 유치를 계기로 2029년 소년체전, 2030년 생활체육대축전 등 전국 대회를 잇따라 개최해 스포츠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번 체전으로 약 15만명의 방문객이 3년간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7월29일 오후 서구 영주체육관 내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서 열린 제44회 월요대화 ‘광주 체육인과 대화’에 참석해 전국체전 관련 의견을 나누고 있다. /광주시제공

2007년 이후 21년만의 유치 성공... 스포츠 도시 위상 강화

AI·문화·참여·포용 4대 목표로 저비용·고효율 대회로 추진  
강기정 시장 “시민 모두가 자긍심 느낄 수 있는 체전될 것”

이에 따른 직접경제효과는 1111억원, 생산유발효과 2172억원, 취업유발효과 2614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광주시는 전국체전 개최를 위한 시설 개보수와 운영비가 약 59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광주시는 기존 체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저비용·고효율 대회를 지향하며,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해 전국체전 개최 예정지인 제주(2026년), 경

기(2027년), 충남(2029년) 등과 협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전갑수 광주체육회장은 “광주 체육인들의 오랜 염원인 전국체육대회가 21년만에 광주에서 다시 열리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전국체전을 계기로 광주의 문화·경제를 발전시키고 스포츠 인프라 확충을 통해 엘리트 체육발전과 생활체육 활성화 그리고 140만 시민 건강 증진까지 이어지

는 종합적인 체육진흥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전국체전은 체육인만의 축제가 아니라 시민 모두가 즐기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대회가 되어야 한다”며 “장애인의 접근성 개선, 지역 상권과 연계 등을 통해 시민들이 ‘정말 잘 치른 체전’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1951년 제32회 전국체전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총 6차례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른 데 이어 2015하계유니버시아드와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2025세계양궁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 경험을 바탕으로 또 한 번의 성공 신화를 준비하고 있다. /김명수 기자



K리그1 광주박인혁 결승골.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제공

## 광주, 안양 꺾고 K리그1 잔류 청신호 ‘박인혁 결승골’ 광주, ‘모파 PK 실축’ 안양에 1-0 승리

프로축구 광주FC가 FC안양을 꺾고 K리그1 잔류 가능성이 커졌다.

광주는 25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4라운드 파이널B 홈 경기에서 안양에 1-0으로 승리했다.

5경기 만에 승리한 광주는 승점 45점을 기록, 안양(승점 42)을 제치고 파이널B에서 가장 높은 7위에 올랐다.

반면 안양은 7경기 무패 행진(4승 3무)이 끊겼다.

광주는 전반 19분 정지훈의 크로스를 박인혁이 헤더로 마무리하며 선제 결승골을 뽑았다.

안양은 후반 추가시간 비디오판독(VAR) 온필드리뷰를 통해 페널티킥을 얻었다.

하지만 키커로 나선 모파의 원발 슈팅이 골문 위로 크게 벗어나면서 동점 기회를 놓쳤다.

수원종합운동장에서선 11위 제주SK가 10위 수원FC를 2-1로 이겼다.

지난 7월 FC서울전 3-2 승리 이후 11경기 만에 승전고를 울린 제주는 승점 35점을 기록, 수원FC(승점 38)와 승점 차를 3점으로 줄였다.

또 잔류 마지노선인 9위 울산(승점 40)과의 격차도 5점으로 좁히며 잔류 불씨를 살렸다.

아울러 김정수 수석코치 대행 체제에서 4경기 만에 승리를 따냈다.

제주가 전반 30분 유리 조나탄의 선제골로 앞서가자 수원FC가 전반 38분 싸락의 헤더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싸락은 시즌 16호골로 득점 랭킹 단독 선두가 됐다.

하지만 제주가 후반 7분 상대 핸드

블 반칙으로 얻어낸 페널티킥을 유리 조나탄이 차 넣어 다시 달아났다.

제주는 후반 44분 최병욱이 슈팅하다가 공을 먼저 걷어낸 수원FC 골키퍼 황재운의 머리를 차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했다. 머리를 크게 다친 황재운은 구급차에 실려 나갔다.

수원FC는 황재운 대신 안준수가 남은 시간 골키퍼 장갑을 꼈다.

김천 상무는 파이널A 경기에서 조기 우승을 확정된 전북 현대에 3-2 역전승을 거뒀다.

군 팀이라 아시아축구연맹(AFC) 클럽대항전에 나서지 못하는 김천은 2위(승점 58)를 지켰다.

사흘 뒤 전역해 울산 HD로 복귀하는 이동경이 김천의 3골에 모두 관여했다.

전북이 전반 5분 이승우의 선제골로 앞서가자 김천이 전반 27분 이동경의 프리킥이 전북 티아고의 자책골로 이어지며 동점골을 만들었다. 전북이 전반 29분 전진우의 추가골로 다시 달아나자, 김천이 후반 3분 이동경의 슈팅이 전북 골키퍼 송범근의 자책골로 연결되며 2-2 균형을 맞췄다.

이동경은 후반 26분 환상적인 원발 프리킥으로 역전골을 터트리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시즌 13골에 성공한 이동경은 득점 랭킹 공동 4위에 올랐다.

도움 11개를 갖고 있는 이동경은 공격 포인트(24개) 레이스에선 선두를 달렸다. 전북 공격수 전진우는 시즌 15호골로 이호재(포항)와 득점 공동 2위에 올랐으나, 팀 패배로 웃지 못했다. /뉴스

## 전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영광서 25일 개막... 3일간 열전

### 2만여 동호인, 축구·공도·야구 등 24개 종목서 경쟁

전라남도는 25일 영광공설운동장에서 제37회 전남도생활체육대축전을 개막, 3일간 영광 일원서 축구, 공도, 야구 등 24개 종목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열전을 펼친다고 밝혔다.

개막식에는 ‘몽처라! 전남의 힘, 천년의 빛 영광에서!’라는 주제로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장세일 영광군수,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 이계호·신정훈·주철현·문금주 국회의원, 시장·군수, 도의원, 선수단 등 7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에는 축구, 공도, 야구, 테니스 등 24개 종목별 생활체육 동호인 2만 1천여 명이 참여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파리 올림픽 대회와 올해 동계체전에서 전남 선수들이 선전하며 지역 위상을 높였다”며 “이러한 엘리트 체육의 도약과 활약은 생활체육인들의 헌신이 그 밑거름이 됐다. 앞으로도 도민이 일상에서 생활체육을 즐기도록 체육 시설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해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1



천21억 원을 지원하고 261명의 생활체육 지도자를 배치해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강좌 이용권과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및 국가 공인 국민체육 인증센터, 스포츠클럽 등을 운영해 생활체육을 통한 도민 행복 증진에 힘쓰고 있다. /전혜경 기자

마법의 국향랜드로 초대합니다

# 국향 대전

HAM PYEONG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

10.24.(금) - 11.09.(일)

함평엑스포공원